

92세 현역 화가... “예술은 경쟁이 아닌 창작”

컬처 & 피플

김영자 화백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김영자(92) 화백을 목포에 있는 김영자 화실에서 만났다. 1922년생이니 1세기 가까이 살았다. 고흥 출신 전경자 선생보다 2살 위다. 여느 사람 같으면 손이 떨려 붓을 잡지 못하고 시력이 떨어져 작업을 할 수 없을 초고령이다. 그는 최근 목포 호텔현대에 있는 현대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김 화백이 걸어온 길은 호남 최초 여성화가라는 수사가 대변하듯 우리나라 근대 서양화단의 역사다. 여성화가가 드물던 시절 일본 동경미술학교에서 공부, 근대미술을 국내에 소개했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의학 공부를 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공부보다는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판단한 남편이 미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1년 동안 일본에서 의학공부하고 있다고 아버지를 속였죠. (웃음) 동경미술학교는 출신을 따지지 않고 재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했기 때문에 입학할 수 있었죠.”

김 화백의 인생에서 한국전쟁은 곡절의 시작이었다. 글을 쓰던 남편이 ‘완장’을 찬 덕분에 지주였던 아버지와 가족들이 목숨을 건지기는 했다. 그런데 국군이 목포에 진군했을 때 도피한 남편은 불구의 객이었다.

김 화백은 이때부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붓을 잡아야 했다. 변변한 전시장도 없던 시절이어서 주로 다방에 그림을 걸어야 했다. 전국을 돌며 무려 60차례 순회전을 열었다. 풍경화를 주로 그렸던 그는 이즈음 새로운 화풍에 눈을 뜨게 된다.

“서양화를 배웠지만 서양을 따르지 않고 한국적인 것을 찾겠다”는 평소 다짐을 실천에 옮겼다. 장터와 산사 등 토속적인 소재를

호남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한국적 풍속화 개척

80여차례 전국 돌며 전시 “최고의 화가는 오지호 선생”

찾아 해냈다. 김영자를 대변하는 ‘농악’ 작품 등 풍속화는 이런 고된의 결실이다. 농악패들이 등장하는 ‘농악’은 흥과 멋을 화폭에 옮겨놓은 작품이다. 농악패들이 상모 돌리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담은 그림은 역동 그 자체다.

“순회전시회 때문에 전주의 한 여관에 머물고 있었던 때였어요. 농악패들을 보게 됐는데, 그들의 율동에서 원초적인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강렬한 율동과 에너지를 화폭으로 옮겨보려고 시작한 것이 농악 시리즈가 됐어요. 제 그림에서 닭싸움, 군마(群馬) 등 움직임이 담기게 된 게 이 때부터입니다.”

움직임과 율동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그의 작업은 농악이 갔다. 화폭에 소리와 울림을 담아내는 영역에 까지 다달았다. 장·소고·장구 등 타악기 소리와 어우러진 한국의 풍속이 화폭에 고스란히 담기게 됐다. ‘김영자 화풍’이 완성된 것이다.

철저하게 직업 작가로 살아온 그는 창작을 가장 높게 친다. 그의 경험으로 미뤄 작가가 자신이 머물던 틀을 깨고 나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라고 했다.

“작가는 자기 세계를 찾아야 합니다. 남이 안하는 창작을 해야 합니다. 예술은 경쟁이 아니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작품이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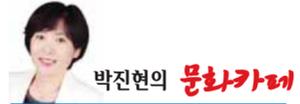
을 해야지요. 머리와 재간만으로 그림을 그리면 생명력이 없어요. 손기술로 공예가는 될 수 있지만 작가는 될 수 없습니다.”

1980년대 그는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목포로 귀향했다. 유달산 꽃축제 대회장을 8년 동안 맡았고 후진양성을 위해 김영자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자신이 아끼던 작품들을 기증했다. 전남여성플라자에 있는 ‘김영자 화백 미술기념관’은 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김 화백은 괴짜이기도 하다. 최근 20여년 동안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작업은 크로키(croquis)다. 크로키는 보통 연필로 하는 것이지만, 그녀는 붓에 유화물감을 적서 크로키를 한다. 크로키는 손과 눈, 육체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사물을 날카롭게 포착해야 하는 작업이다.

한국 화파의 산증인인 그는 대한민국 회화사에 등장하는 화가들과 동지로 지냈다. 마당발이랄 만큼 인맥이 넓다. 오지호, 강유운, 양수아, 배동신 선생 등 대표적인 작고 작가들과 교분이 깊었다. 김 화백이 꼽는 최고의 화가는 오지호 선생이다.

“오지호 선생님은 예술가의 정신을 아는 분이었어요. 작가로서 고집은 말도 못하지요. 작가가 색을 조절해서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데 선생님은 그걸 하셨어요. 절대 원색을 쓰지 않고 자기만의 색을 조절해서 썼어요.” 김 화백은 인터뷰를 마친 뒤에도 자신의 인생이 담긴 그림을 하나 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그 그림 속에는 아직도 씨앗으로 남아 있는 화가의 꿈이 담겨져 있었다. /목포=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최근 예약 1월호 특집기획인 ‘사랑이 브랜드다’를 취재하기 위해 경남 통영에 다녀왔다.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통영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소설가 박경리, 시인 정마 유치환·김춘수, 서양화가 전혁림 등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을 배출한 예향이다. 그런데 통영을 찾던 날은 때론 한파와 폭설이 내려 ‘사랑 구경’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이런 기자의 우려와는 달리 통영은 ‘탄세상’이었다.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인 동리광 벽화마을을 기점으로 박경리 기념관~정마문학관~김춘수 유품전시관~통

영은 다형 김현승(1913~1975), 용아 박용철(1904~1938), 박봉우(1934~1990) 등 걸출한 시인들이 많지만 이들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서다. 특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시인은 박봉우다. 광주고와 전남대 출신인 그는 남북 분단의 비극을 고도의 시적 감각으로 형상화한 ‘휴전선’(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았지만 시대와의 ‘불화’로 평생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다. 생전 문우였던 천상병 시인이 널리 알려진 데 비해 박봉우 시인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2005년 그

유치환과 박봉우

영국제음악당~전혁림 미술관 등으로 이어지는 문화예술인투어에는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그중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은 곳은 청마문학관이였다. 지난 2000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통영시 정랑동 언덕에 자리한 문학관은 청마 유치환(1908~1967)의 유품 연서와 유품 등 350여 점의 전시돼 있다. 비록 모습은 소박했지만 문학관 입구에 설치된 빨간우체통에 직접 쓴 손편지를 넣으며 즐겨워 하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다.

문학관의 편지쓰기체험은 20여년 간 매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5000여 통의 편지를 쓴 유치환의 삶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 그의 대표작 ‘행복’은 시인 이영도와 나눈 순결한 사랑을 담은 시로 청마는 옛 통영우체국의 문턱이 달도록 드나들었다.

기복적인 한파에도 관광객들의 열기로 ‘행복한’ 청마 문학관을 보니 문득 광주의 작고 문인들이 스쳐 지나갔다. 유치환, 김춘수 못지 않는 마지막 순간을 전해 들은 김규동 시인이 ‘가난한 살림에/소주 두 병 남기고/그는 갔다 저승으로/숨을 거둘 때/꼭 꺼진 두눈에 눈물이 고였더란다/몽롱한 의식을 뒤덮은 술한 것발/깃발에 싸여 박봉우는/이 땅에 오는 통일을 보았을 것이다.’(‘시인의 죽음’)라고 쓴 애도시가 그나마 위안을 준다.

2015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의 해가 밝았다. 하지만 전당만 관 입구에 설치된 빨간우체통에 직접 쓴 손편지를 넣으며 즐겨워 하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다.

문학관의 편지쓰기체험은 20여년 간 매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5000여 통의 편지를 쓴 유치환의 삶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 그의 대표작 ‘행복’은 시인 이영도와 나눈 순결한 사랑을 담은 시로 청마는 옛 통영우체국의 문턱이 달도록 드나들었다.

기복적인 한파에도 관광객들의 열기로 ‘행복한’ 청마 문학관을 보니 문득 광주의 작고 문인들이 스쳐 지나갔다. 유치환, 김춘수 못지 않는 마지막 순간을 전해 들은 김규동 시인이 ‘가난한 살림에/소주 두 병 남기고/그는 갔다 저승으로/숨을 거둘 때/꼭 꺼진 두눈에 눈물이 고였더란다/몽롱한 의식을 뒤덮은 술한 것발/깃발에 싸여 박봉우는/이 땅에 오는 통일을 보았을 것이다.’(‘시인의 죽음’)라고 쓴 애도시가 그나마 위안을 준다.

의 마지막 순간을 전해 들은 김규동 시인이 ‘가난한 살림에/소주 두 병 남기고/그는 갔다 저승으로/숨을 거둘 때/꼭 꺼진 두눈에 눈물이 고였더란다/몽롱한 의식을 뒤덮은 술한 것발/깃발에 싸여 박봉우는/이 땅에 오는 통일을 보았을 것이다.’(‘시인의 죽음’)라고 쓴 애도시가 그나마 위안을 준다.

2015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의 해가 밝았다. 하지만 전당만 관 입구에 설치된 빨간우체통에 직접 쓴 손편지를 넣으며 즐겨워 하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다.

문학관의 편지쓰기체험은 20여년 간 매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5000여 통의 편지를 쓴 유치환의 삶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 그의 대표작 ‘행복’은 시인 이영도와 나눈 순결한 사랑을 담은 시로 청마는 옛 통영우체국의 문턱이 달도록 드나들었다.

기복적인 한파에도 관광객들의 열기로 ‘행복한’ 청마 문학관을 보니 문득 광주의 작고 문인들이 스쳐 지나갔다. 유치환, 김춘수 못지 않는 마지막 순간을 전해 들은 김규동 시인이 ‘가난한 살림에/소주 두 병 남기고/그는 갔다 저승으로/숨을 거둘 때/꼭 꺼진 두눈에 눈물이 고였더란다/몽롱한 의식을 뒤덮은 술한 것발/깃발에 싸여 박봉우는/이 땅에 오는 통일을 보았을 것이다.’(‘시인의 죽음’)라고 쓴 애도시가 그나마 위안을 준다.

/jhpark@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전시해설 등 자원봉사자 모집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에서 2015년 박물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신규 자원봉사자는 전시해설 및 어린이체험실 교육 프로그램 도우미, 전시실 질서 유지 및 안내 시설물 안내 등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박물관 행사 우선 참여, 심화학습 및 문화유적 답사 등 기회를 제공한다.

심화학습 및 문화유적 답사 등 기회를 제공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http://kwangju.museum.go.kr)에서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570-705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30년 전통의 - **민우액자표구화랑**

영화 캔버스 액자, 표구, 각종액자 제작, 그림판매

작가의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허 경 식

목포시 산정동 112-1 (백년로 4거리 장약국 건너편)
T (061)274-1481
H 010-2632-1481

오직 양심과 정성만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백함촌**

오늘의 물중은 요리

생우럭지리 (국내산)	소 25,000원 중 35,000원 대 45,000원
병 어	45,000원
생선구이 (2인기준)	25,000원 1인추가시 5,000원 추가
백함세트 (탕+우렁+구이)	50,000원
백함탕	중 30,000원 대 40,000원
조기매운탕	중 25,000원 대 40,000원

목포시 상동 1159-3번지 (평화광장 상그리아비치호텔 앞 담양골 건너편)
T (061)281-9907

법무사 배태경 사무소

봉사의 자세로 열정과 성의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 친절 무료상담

부동산 등기·법인등기 민사·형사·가사 호적·개명

경매 입찰 대행 가압류·가처분 등

T (061)283-2322
F (061)283-2302
목포시 옥암동 목포 감찰청 정문앞